결혼탈출 이혼탈출 쇼생크탈출

(고전7:17~24)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혼탈출 이혼탈출 쇼생크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이가 많은 총각이나 처녀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서로 '내가 너를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구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탈출입니다.
결혼도 내용적으로 보면 탈출이고 마찬가지로 이혼도 일종의 탈출입니다.
결혼은 참으로 외로운 싱글 생활로부터의 탈출이고, 이혼은 참 지긋지긋한 결혼생활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제3의 탈출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중에 뜻하는

바 제3의 탈출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도바울의 생각으로는 결혼으로 탈출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으로 탈출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혼한다고 구속과 불편함과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탈출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오직 쇼생크탈출에만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탈출이 성립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쇼생크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내가 골프코치와 불륜의 관계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날 밤 강도가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살인동기가 이 주인공인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무참하게 죽은 두 사람의 살인범으로 앤디라고 하는 촉망 받는 젊은 은행간부가 다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종신형을 언도 받습니다, 두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살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가게 된 감옥에서 20년 만에 조그마한 망치 하나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망치로 구멍을 뚫고 하수도를 통해서 탈출하게 되는데, 제가 이 쇼생크탈출을 오늘 제목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그렇게 탈출한 뒤에 감옥의 간부들과 간수들이 와서 그 방을 둘러볼 때의 장면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인공 앤디가 지내던 감옥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앤디가 일상적으로 지내던 여느 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앤디가 쓰던 잡동사니며 침대며 작은 책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이라도 사람이 여기 있다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앤디라고 하는 그 키 큰 사람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에서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벽에 앤디가 좋아하는 여배우의 포스터가 큼지막한 게 붙어있습니다.
늘 붙어있었던 거예요,
감옥의 최고 책임자가 무얼 집어던졌는데, 그 포스터가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떼보니 거기에 구멍이 나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만 챙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쇼생크탈출, 이 탈출을 통해서만 우리는 결혼을 해서 이루려는 것, 이혼을 해서 얻으려는 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외로움의 극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바로 쇼생크탈출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듯이 이 지구 위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마음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지구 평면상에서 변화를 통해서 싱글 상태를 탈출함으로써 얻어지는 평강과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이 결혼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이혼이라는 탈출을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싱글이면 싱글인 대로 그대로, 결혼한 상태면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쇼생크탈출과 같은 탈출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싱글이 결혼으로 탈출하려는 것, 기혼자로서 이혼을 통해 탈출하려는 것, 그 어느 것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전체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만 해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목회할 때 심방을 다녀보면 이혼해야만 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에요.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데 상식적으로 듣다보면 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한 사람의 문제, 그 다양한 케이스를 7장에서 몇 마디 말로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또, 결혼이 무척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과 노처녀의 문제, 이거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요.
독신이 은사가 아닌데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는 당사자의 상황도 가지가지에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고… 하여간 이유도 많고 상황도 달라서 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날마다 마음으로 이혼을 바라고 있는 사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영적으로 문제에요.
‘너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에 관한 모든 많고 많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한 장의 구절들로

답변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의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에 관한 것이고 이혼에 관한 것인 한,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일관되게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마주할 때 그 경우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다양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일관되게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교인들이여! 내가 지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씁니다.' 하고 17절에서 24절까지를 쓴 겁니다.
결혼과 이혼의 상황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마음가짐을 갖고 결혼문제와 이혼문제를 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7절 20절 2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례 받은 자의 상황이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상황일 수도 있고,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고 자유인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부한 상황일 수도 병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시의 지구 위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져서 나와 마주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나 이혼이나,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부자가 되겠다고 애쓰는 거나 다 똑같은 탈출이에요.
이런 모든 탈출을 멈추라는 얘기에요.
평면상의 모든 탈출을 멈추고 수직상의 탈출을 통해서 마음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 상태에서 결혼문제와 이혼문제를 볼 때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혼탈출과 이혼탈출, 이 탈출을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혼했다고 책임과 부자유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착각하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싱글입니까? 40이 가까이 되는 노처녀가 되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 노예 상태의 신분과 구원 받음이 서로 상충되지는 않을까 갈등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마음속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신분상의 노예를 벗어난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실제 신분상의 자유자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고 무할례자이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상태나 무할례의 상태나 다 탈출을 해야 될 대상이지, 무할례에서 할례로 탈출하고 할례에서 무할례자처럼 탈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구 위의 평면상의 탈출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지구에 대해 죽고, 지구 위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삶의 상황, 그것이 싱글이든지 잘못된 결혼이든지, 가난하든지, 누구의 종으로 살든지, 모든 상황을 떠나서 수직으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지구 위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쇼생크탈출처럼 감옥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듯이 우리 마음만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혼이라는 것으로 평면상의 탈출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평면상의 탈출을 중단하고 수직상의 탈출을 통하여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음속에 진정한 외로움의 극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함께함의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등이 없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가, 이 세상의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생긴 평강과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늘과 결혼하라는 얘깁니다.
함께 있어야 될 것은 저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와 헤어져서 새로운 여자나 새로운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돈과 함께 있는 부자의 상태로 탈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혹은 지식과 함께 있는 유식한 자의 상태로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과 함께 하는 건강한 상태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건 가난하건 무식하건 싱글이건 기혼자이건, 지구 위의 상황인 한, 그대로 다 놔두고 마음만 십자가로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깁니다.
진정한 결혼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지구 위에서 결혼할 것이냐 이혼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혼하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는 연합, 이 결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탈출하라는 얘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지구상의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보다 열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말씀은, 네 마음으로 얼마든지 지구 위에서 신분상 자유자가 느끼지 못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내 노예 신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도바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생 자유자로 사는 자가 눈곱만큼도 부럽지 않습니

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미혼인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40이 다 된 노총각 노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비웃는 듯 한 표정으로 나를 봐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의 무중력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혼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결혼인 듯이 보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누구의 종처럼 살고 있는 것도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쇼생크의 앤디가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듯이, 내 마음만 빠져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판단의 무중력 상태에서 가난이 싫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좋은 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거하는 상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자의 마음가짐으로 지금 결혼과 이혼을 바라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결혼은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의 삶에서 상황을 변화시켜야 될 의지와 소원과 바람이 다 의미가 없는 거라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몸을 가지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가치판단의 무중력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부자입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빨리 하나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오래 살게 됩니까?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교하든 오래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놔두고 마음은 쇼생크 탈출을 하듯이, 마음만 달랑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으므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당신의 상태를 바라볼 때 이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별히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뜻하고 계시고, 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결혼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독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5년 뒤에 마흔 다섯인데 덜컥 결혼을 시키신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 은사로서 받아들여져서 그 결혼의 은사 속에서 감사하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탈출도 이혼탈출도 능사는 아닙니다.
오직 쇼생크탈출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진 삶, 십자가가 알려지고 있는 지금 이 지구 위의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는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함께 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만 되면 결혼과 이혼의 그 다양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구 평면 위에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이 지구 평면을 수직으로 탈출하는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진정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가치판단의 무중력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